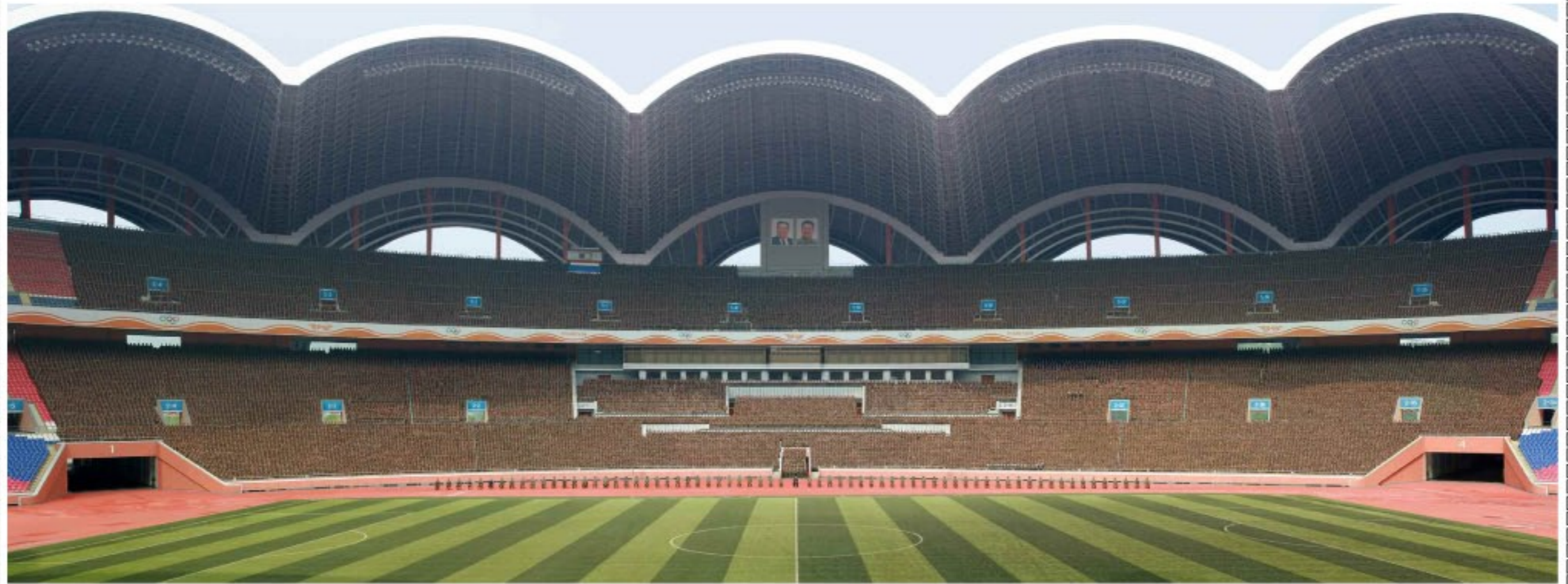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 인민무력성 부상인 육군중장 김정관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땅을 진감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인민군대를 내세우시고 정력적인 명도로 이 땅우에 건설의 대변영기, 자력자강의 만리마속도창조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전의 제일기수, 돌격대담계 사회주의대건설의 격전장 마다에서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영웅조선의 건설신화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이 당의 웅대한 구상과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주체건축예술의 미래와 사회주의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장조물들을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수없이 일떠세우므로써 우리를 압살 하려는 원수들에게 침몰을 안기고 사회주의조선의 무궁무진한 국력과 발전 잠재력, 감동한 기상을 만천하에 떨친대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건설부문 열성자들이 앞으로도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스러운 승리 전통, 애국전통을 굳건히 이어 사회주의 대건설전투에서 불타는 충정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더 높이 발휘하여 조국변영의 새시대,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앞장

에서 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대대같은 사랑과 믿음에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투의 혁명정신, 백투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21세기 건설의 대기적들을 편이여 창조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략적목표를 앞당겨 실현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당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불려대에 탄원한 대성구역의봉사사업소 노동자 김태영, 김명순, 대성구역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류영희, 평선시로동조합 로동자 김은복, 전자공업성 정보기술개발사 연구사 리정희, 평안구역종합식당 로동자 유계화, 평안남도지방공업관리국 로동자 김금향은 고산땅을 대규모 파입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서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을 돕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재신성 산하단위 정보통신기술원 최정혁은 216사단 618건설대원 불려대원들의 생활에 뜨거운 열육의 정을 기울였다.

내각사부국 산하단위 최기혁은 삼지연군 읍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무르익게 할데 대한 당의 승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보견성 대외보견협조사 교환자영심은 가정에서 마땅한 많은 후방

물자를 건설장에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성간군내부업축산관리위원회 최기원 리정철은 배두대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에 순결한 마음을 바쳐 갈 일념으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지켜올리고있는 불려대원들에게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함께 이바지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인디아신문 <스레이츠벤>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장제도와 무도의 방어태세를 시찰하시고 군인들의 전투훈련준비실태에 대한 소식을 전하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장제도방어태의 감시소에서 연행도를 바라보시며 최근 적정을 보고 받으신 북조선명도자께서는 새로 조직한 적대상물화력라격계획을 료해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포병집단이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가 일단 명령이 내리면 적들의 사동비를 완전히 분절시켜야 한다고 하시었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무도 영웅방어태도 시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섬방어태도에 새로 무린 바다물정계기설을 돌아보시였으며 군인들,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또한 방어태들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카르치심을 주시었다.

로씨야의 파스통신, 리아노보스찌통신, 인디아의 지뉴스TV방송, 인디아-아시아통신, 일본의 NHK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중앙TV방송, 홍콩 분황 위성TV방송, 환구망, 동북망, 동북보도망, 영국신문 <데일리 메일>, 스위스신문 <리 마명>, 미국의 LNK통신, 페루신문 <엘 프메르세요>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조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기레통신,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 친선협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장전 85륙경축 조선인민군 군총합동 라격시위를 보신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통일, 세계자주화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보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의 세련된 명도 밑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한사발같이 떨치나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를 창조하고있다.

출판사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명도마라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독자들이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리라고 확신한다.

발행식이 4월 13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출판사 총사장 마웅 마웅 나 임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출판하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 계시어 조선인민은 만드시 최후승리를 안아올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배두 코드르바시은 세팔고 에세이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배두 코드르바시은 세팔고 에세이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배두 코드르바시은 세팔고 에세이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같은 칭송의 표현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강화해나가기 도독 하시었다.

그이를 모시고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과 김정일명도자 탄생 75돐을 경축하는 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김정은동지의 명도밑에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은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파각히 짓부시며 승리만을 면치고있다.

결집한 명도자께서 계시어 조선의 통일은 만드시 이룩될 것이다.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중앙통신】